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12시
후 (4부) 12시 1시 30분
금요일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에배 7시 30분
수요일에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3월 9일 (제73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칼럼

제비도 오장육부가 있다

흥부가 다친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줬다. 그것을 심었더니 이듬해 커다란 박이 열렸다. 흥부네가 그 박을 땀때는 거기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부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일부터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싸매주었는데, 이번에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어 심었다. 박이 열려 그것을 땀때는, 이게 웬일이냐! 거기서 도깨비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 놀부와 놀부 처를 때리고, 집도 다 망가뜨리고 재산도 다 앗아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속담이 있는데, '제비도 오장육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비 같은 미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현대 감정은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 주는 대로 받는다는 법칙과 더불어 그것도 후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준다는(눅6:38) 법칙이다.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났을 때 "이 새끼가..." 하면, 상대가 "뭐 이 새끼가?" 하면서 목살 잡고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다. 이것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린 것을 이유다.

그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홉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신 하나님(롬9:13).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잠8:17)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을 핏두로 다윗과 욱합을 갇 여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 있는가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처럼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린 자들도 있다. 내가 매사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함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가? 감정을 사지 말고, 감동을 사라.

물오를 때 고기 잡아라

물오를 때 고기를 잡아야 하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한다. 인천교회는 지금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을 타야 한다. 이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주(2월 23일)에 이어 이번 주(3월 2일)에도 인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에 앞서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에도 직접 인도하셨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을 가보세요. 우선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답지요. 또 서비스가 좋습니다. 교회는 영적음식점입니다. 고로 교회는 말씀이 맛있어야 하고, 교회만의

않습니까? 우리교회에 한 번 와본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 교회를 만듭시다." 목사님은 주일에배에 은색 제킷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단에 서셨다.

"지금 제 옷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압니다. '무슨 목사가 빨간 바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입관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선입관이지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저를 보면 저는 분명 이상한 목사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선입관을 깨트리면 '멋진 목사'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선입견을 깨야 합니

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6:42)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이, 또 믿음의 거성들은 바로 이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나이 들면 뒷방신세'라는 고정관념을 켜지오. 고아출신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 이는 '비밀 언덕이 있어야 출세한다'는 관점을 갇 자입니다. 입다 역시 '출신성분은 못 속인다'는 관념을 깨고 성공한 자입니다. 최고의 작곡자였던 베토벤, 휠체어에 앉은 채 대통령을



인천예수중심교회 주일에배(2014.3.2)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주역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음식 맛은 고객이 제일 잘 압지요. 인천교회 담임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성도가 제일 잘 압니다. 물째,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건물이나 주위상태도 물론 깨끗해야겠지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과 직분자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인천교회 주의 종들이나 장로, 권사, 집사들이 깨끗하고 정직할 때 성도들이 물러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오신 성도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집은 물론 낮아져 섬기다보면 분명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점은 다시 가고 싶

다. 북 받으려면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가면 돈 내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것이 감언이설처럼 들리고, 교회의 봉사자들이 잘 대해주는 것조차 사기치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란 눈에 들보가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만물이나 만인이 제대로 보일 수도,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

네 번이나 한 루즈벨트, 그들은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과감히 갇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란 넓고 하얀 벽 구석에 작은 검정색 점이 하나 찍힌 것을 보고 전체가 검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성공도, 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멋진 생각이 멋진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요즘 인천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 잠을 안자도 피곤치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에 관한 목사님의 열원이 얼마나 큰지 가늠됩니다.

3월 16일, 서울교회도 총동원전도주일 을 선포했다. 인천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서울교회에까지 불어오리라 믿는다.

선영서

jesus7857@gmail.com

2014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34:9~14)

만사형통 하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는 공경할 경(敬)과 두려워할 외(畏)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공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포함한 복합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때의 '두려움'이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사랑해서 조심스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잠8:13).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삶 가운데 악을 미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악을 미워하고 악을 좇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것이고, 악은 이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죄악을 인격화 하면 미귀입니다. 따

를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잡힙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어호화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16:6).

우리는 올해 복 있는 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천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참 많습니다. 첫째, “검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니라”(잠 22:4).
해 나
니

라. 그리고 악인의 년세는 짧아지느니라”(잠10:27).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오래 삽니다. 요즘 장수하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이나 약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807세, 에노스 950세, 게난 910세, 마하랄렐 895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율렸고, 므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그리고 노아는 950세나 살았습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

에 가능합니다(삼상 2:6).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
은 자녀가
는 것임니

을
경외하
면 재물이
늘어나고 영광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惡)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서 악을 쫓는 것은 곧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분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존경은 일에 발린 소리일 뿐, 절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을 도모하고, 악을 좇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겁납니다. 다들 ‘말세야,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을 동원해서가 아닙니다. 곳곳에 CCTV

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18절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낀 값에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 3:16-18).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악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

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잠14:26). 세상이 악하니까 자녀들 걱정이 많습디다. 학교도 믿지 못하겠고, 친구도, 이웃집 사람도 못 믿습디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으로 걱정 뚝입니다. “여호와의 경의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의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잠19:23). 넷째, 하나님을 경의하면, 곧 악을 미워하면 지혜의 샘이 열립니다. “여호와를 경의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기록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법, 지혜의 원천이니 하나님을 경의하면 지혜가 마르지 않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고운 것도 거저 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잠31:30), “주의 이름을 경외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계 11:18).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상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절대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거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며, 형제간에 이간질하지 않을 것입니다(잠 6:16~19).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으며(히11:7),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창22:12). 욥도, 고넬료도, 히브리 산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시34:9-14). 제가 그 샘플입니다. 저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전12:1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행여 악을 좇고 있다면, 악을 흉내 내고 있다면 지금 돌아서세요.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친 것 같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육에 복을 받게 하세요(신4:10).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
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 700-0688

은행 계좌 안내

☎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전(前)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의 글을 옮겼습니다::

경제혁신의 길

1962년부터 1986까지 시행이 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하 개발계획)과 혁신경제 3개년계획(이하 혁신계획)의 공통점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은 국가가 전면에서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소수의 대기업과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혁신계획은 공공부문을 유통화하고 국내 자본을 활용하여 유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질적인 가계경제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201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국가부채는 2.135조원(공기업, 연금금 포함)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개선은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공사채 총액관리, 그리고 외부감사법인과 같이 공시의무를 부여하여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으로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의 경쟁력 있는 DNA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하락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창업투자회사 설립규제의 완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투자육성은 금융실명제와 금융위기로 숨어있던 음성자금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의 위험관리와 평가능력의 결여는 투자자본의 손실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 미완성으로 사장되거나 상품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인 장

치를 통해 재구성하여 기존산업에 접목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을 구성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총 가계부채 잔액의 규모는 1.023 조원이며, 그중 5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출자전환 등 절대금액의 축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그리고 원리금 상환일정을 선진국과 같이 장기화 하는 상품을 개선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지금까지 정책기관,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역할을 분배하여 각 구성원을 위하여 종신적 책임을 대가로 지불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향후에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서만 생존 및 성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30년은 목표를 이루고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의 초지일관(初志一貫), 사즉생(死即生, 죽고자 하면 산다)의 정신으로 압축됩니다. 경제혁신으로 내건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대업을 이루기에는 짧을지 모르지만,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증명하신 것처럼, 귀는 닫고 입에는 칼을 물고, 마치 계백장군의 정신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2017년에는 4%의 성장과 개선된 고용률의 초석을 다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임윤석

“나는 꼴찌였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 머리로 그리 좋지 않은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나는 대구중학교를 다녔고, 석차는 68/68등,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자식을 통해 졸고자 대도시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꼴찌라니. 가난한 소작농이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적표를 1/68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보낸 아들이 집으로 오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니?”고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봐야제. 이번에는 어찌다 1등을 했는가 봐.” 마을 사람들은 “자식 하나는 잘 두었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제.” 하면서 부러워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였다. 이튿날, 강에서 떡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께서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목록 1호였다. 가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아부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곧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아버지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 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사실은 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 해라. 민우(손자)가 듣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아직도 알 수가 없다.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
여저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랴.**



:: To Be Succeed ::

예절은 인격을 완성시킨다

지난 소치 동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올포디움(All Podium) 달성이 화제다. ‘올포디움’이란 모든 경기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것을 말한다. 김연아 선수는 7살에 피겨를 시작한 이래 노비스, 주니어, 시니어 전 경기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하여 피겨 스케이팅 100년 역사상 여자 싱글 부문에서 유일하게 올포디움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피겨 역사의 전설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피겨 팬들의 환호를 받는 이유는 단지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몸 전체가 왼쪽으로 10도 가량 기울어질 만큼 수도 없이 회전하고 점프하며 세계 최고의 스케이팅이 되기까지, 주변을 향한 성숙한 매너와 예의

또한 그 깊이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성숙미와 대범함이 한층 더 빛났다고 할 수 있다. 석연찮은 점수 판정으로 아쉽게 은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의연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전 세계 언론이 결과에 의미를 제기하는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며 판정을 인정하고 소트니코바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4년 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229.56이라는 사상 초유의 점수로 우승할 당시에는 “대회에 나오기까지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수고를 알기에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며 마땅히 터져 나올 법한 환희와 기쁨을 절제하는 미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2011년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옆자리에 앉은 맵시인 파파구 스티비 원더가 마이크를 켜지

못해 당황하자 김연아 선수가 그의 비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에 조심스럽게 그를 도와 화제가 된 일도 있었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가 예의를 지킬 줄 안다고. 그렇다. 수많은 고통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그녀는 실력을 향상시켰고, 성숙한 인품도 갖추게 되었다. 성공은 나를 낮추어 나를 높이고 배려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자. 그리고 나의 분야에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 그것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아보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이, 또한 ‘나’라는 브랜드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빛날 것이다.

“아무 일에도진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2:4)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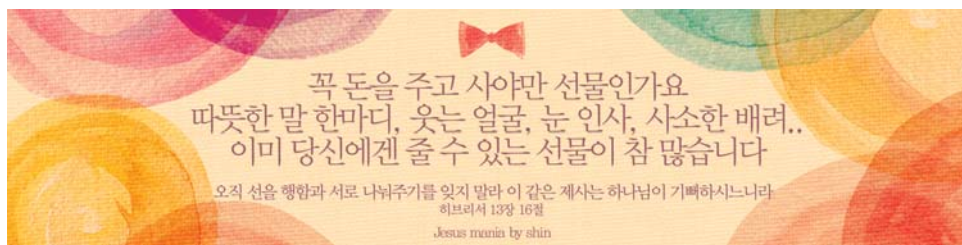
귀를 기울이세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28세 때 내란음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추운 겨울날 형장에 끌려와 기둥에 묶인 그는 사형 집행 시간을 생각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딱 5분 남아있었고, 28년의 세월 동안 단 5분이 그렇게 천금 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형장에 함께 끌려온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 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 데 2분, 발뺌하고 살던 땅과 자연을 둘러보는 데 1분을 쓰기로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데 2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러니 문득 3분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쓰련만!

바로 그 때였습니다. 형장이 떠돌아다니던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 명령을 받고 온 병사였습니다. 간발의 차로 사형을 면한 그는 이후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5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경험을 그를 위해 한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5분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천금 같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감동, 감동!!::

봄맞이 옷장 정리

문자 그대로 완전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때다. 한낮의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잔잔하며, 이제 곧 이곳저곳에서 연꽃빛 새싹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한낮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두꺼운 점퍼 대신 입을 만한 옷을 찾기 시작한다. 장롱 여가저기에 넣어둔 옷들을 꺼내어 본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겨우내 묵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화사한 봄기운이 젖어 들 수 있도록 구석구석 닦아낼 것이다. 그래서 3월은 봄맞이 옷장 정리의 계절이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올해 초, 우리는 복 받는 한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며 복 받는 한 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숨고르기를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몇 가지 점검과 확인, 그리고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먼저 계절에 맞고, 활동하기에 좋은 옷들을 다시 꺼내는 것처럼, 그동안 덮여 두

었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무지로 기도하겠다는 나의 작은 계획들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신앙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봄이 시작되기 전에 옷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억 저편에 있던 옷을 입어 보지도 못하고 한 계절이 끝나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신앙 상태의 점검 없이 일상에 몰입하다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내 믿음의 기도들이 퇴색될 수 있고, 자칫 하나님께 간절히 갈구했던 믿음의 기도들이 기억 저편으로 잊어지고 삶에 찌들어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 봄맞이 옷장 정리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재확인하면서, 묻어뒀던 믿음의 기도는 없는지,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은 그대로 있는지, 주님과 약속은 지

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신앙 상태의 점검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구슬과 타성에 젖어 묵은 먼지 쌓이듯 나태해진 내 믿음의 상태를 청결하게 하는 대청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빠진 부분, 잊었던 부분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채워나가며,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상태를 깨끗하게 청소해보자.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새삼 되새기면서,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상태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온 몸으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 몸과 맘으로 느끼는 충만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록펠러의 십계명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록펠러다. 그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 최대의 석유 재벌이 되었다. 그가 이런 부호로 성공한데는 확실한 비결이 있다. 바로 신앙의 조연자요, 기도의 후원자인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평생 가슴에 품고 실행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 새겨진 록펠러 어머니의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을 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주일예배는 본 교회서 드려라.
4.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어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나 이거 알아' 하지 말라. 알면 뭐하겠는가?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2014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자'고 했다. 물론 복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록펠러와 같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말씀은 사실 실천하기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내일부터 하자'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나도 건강할 수 있다::

Good News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덤프트럭이 그 청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중년신사가 잼싸게 밀쳐내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너무 놀라서 신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도시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청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하기 전에 죄인인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청년이 입

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한참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를 기억할 수가 없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하게 내뿜은 청년의 말에 방청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몇 년 전 대형트럭이 저에게 달려들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때처럼 단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법정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이제야 기억이 나네. 그러나 그 날에는 내가 자네의 구세주였지만, 오늘은 내가 자네의 심판주임을 명심하게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간 때문!

성경에는 '분노'라는 단어가 꽤 자주 나온다. 구약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질렀을 때, 분노를 통하여 그 죄과에 대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였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간음한 여인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분노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이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간이 상한 경우 분노 조절이 잘 안될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고, 실제로도 과도한 분노는 간을 상하게 만든다.

보간탕, 청간탕과 같은 간에 혈액을 보충하고 간의 열을 내려주는 한약 처방

이 분노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한약 처방이다. 실제로 간의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전보다 분노가 줄고, 감정 기복이 줄게 되어 성격과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

성경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실패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분노를 잘 조절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다. 똑같은 스트레스와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는 분노와 억울함을 극복하고 믿음과 기도로써 응답을 받는가 하면, 누구는 분노로 살인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도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흥분하거나 폭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물론 믿음이 있거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어도 그러한 성격을 보이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된다.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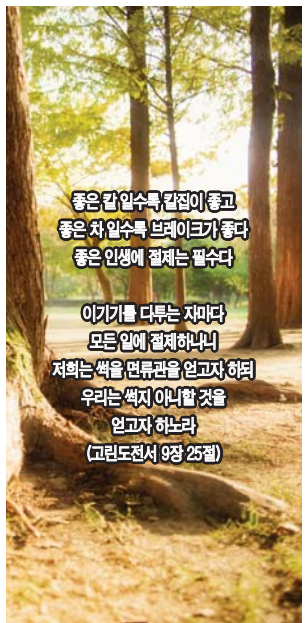
에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감맥대조탕을 권한다. 감초대추 4g, 부소맥 10g을 물에 타서 하루에 100~200cc 정도를 차처럼 마시면 된다. 그래도 조절이 잘 안 되면 전문 한의원에서 치료받기를 권한다.

분노도 중독된다. 분노는 내는 사람이 계속 내고, 그 분노로 인해서 간이 더 망가져가고, 뇌혈관 질환의 확률도 높일 수 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인격적인 성장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분명 주님의 자녀로 성화되어가는 삶의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가 아닐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욥5:2).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좋은 칼임수목 칼집이 좋고
좋은 차임수목 브레이크가 좋다
좋은 인생에 질책은 필수다

이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질책하느니라
저희는 씨를 연류관을 입고자 하되
우리는 씨지 아니한 것
을 입고자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